

예술꿈나무 등용문 '호남예술제' 발레 경연으로 막 올랐다



26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한 제68회 호남예술제 발레 경연에서 송원초등학교 군무팀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7월6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부문 미취학 아동 '새싹 그리기 축제'도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올해로 68회를 맞은 호남예술제가 26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발레 경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지역 예술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간 4년 째를 맞은 1956년 동방극장(옛 무등극장)과 서석초등학교에서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이날 개막한 제68회 호남예술제는 오는 7월 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은 음악(성악·기악·양상블), 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현대무용·실용무용 등), 국악(기악·성악·가야금·타악 등),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운문(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코로나 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던 합창·합주 등 대규모 단체 부문은 경연은 올해도 열리지 않는다. 또 미술·작문 부문은 공모전으로 형식으로 진행하며 올해부터 만화애니메이션 부문은 폐지됐다.

미술·작문(산문·운문) 부문은 오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를 통해 신청접수 후 작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오는 6월 8일 발표되는 두 개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도 같은 기간 그림을 접수받는다. 주제는 제한이 없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미술·작문 부문, 새싹 그리기 축제 입상자 발표는 오는 7월20일(예정)이다.

그동안 참여 인원만 59만 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의 꿈을 키워준 뒷받침이었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

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장우리,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용), 강연교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쳤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음악 분야 교육자로는 강숙자·정애련·박계·조수현·김예령·김진수·김혜경·서영화·박행숙 등이 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는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초·중·고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김 교수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등 수십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뉴욕에서 활동중인 현대 무용가 김영순과 서차영·김화례·김희숙·김미숙·임지형·박준희·정희자·박선숙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화가 최영훈, 시인 고재중·양성우 등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문의 062-220-05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요한 '정원'에서 자신을 마주하다

최순임 기획초대전, 27일~6월4일 드영미술관

'아름다운 그림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27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 최순임 작가 기획초대전을 갖는다.

'Bona's Garden, LE JARDIN :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최 작가는 자신의 감정에 주목한 3가지 정원을 평면회화, 드로잉,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점을 통해 선보인다. "거칠고 척박한 사회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한 정원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행가, 고양이, 산수도, 회전목마 등 그녀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풍경의 정원을 완성했다. 작가는 삶의 과정에서 겪은 일상과 감정을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해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처럼 표현했다.

제1전시실은 기쁨과 환희의 정원으로 이탈리아

여행 당시 아름다운 역사적 건축물과 예술품을 관람하며 느꼈던 환희의 감정을 예술적 영감으로 치환해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생명 순환의 정원으로 꾸민 제2전시실에서는 작가의 인생 전환기와도 같았던 투병 기간 중의 경험이 이끌어낸 작품을 만난다. 생성과 소멸이 쉽 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이치를 자각하고, 자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요소들의 소중함을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제3전시실은 고요와 안식의 정원으로 모든 생명의 끝에 평화로운 자연에서의 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지금까지 2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국여류조각회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꽃'

이성자 작가, 어린이문화대상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작 동시집 '기특한 생각'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가 2023어린이문화대상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동시집 '기특한 생각'.

어린이문화진흥회 어린이문화대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열어 이성자 작가의 '기특한 생각'을 올해의 어린이문화대상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래책방 동시집 제11권으로 발간된 '기특한 생각'은 모두 60여 편의 동시를 담고 있다. 책에

는 기특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거짓 없는 고운 마음을 가진 친구, 맑은 눈으로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친구, 누구든 계산하지 않는 동심으로 대하는 친구 등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그리고 있다.

동시 부문 시인상은 광주 출신 교운자 시인의 '배짱도 좋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성자 시인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우리나라 좋은동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너도알거야' '키다리가 되었다가 난쟁이가 되었다가' 등 9권과 동화집 '형이라고 부를 자신 있니?', '뽕나무' 등 17권을 펴냈다.

현재 특수 목적을 가진 신일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각종 도서 및 아동문학에 관한 자료제공과 작품을 창작하고 합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68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발레		
<p><심사위원> 이영애(전, 무용협회 광주지회장) 박경숙(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p> <p>◇ 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 ▲ 금상 4 김세아(조봉초4) ▲ 동상 1 이연우(조봉초4)</p> <p>◇ 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 ▲ 금상 4 최윤지(태봉초6) 6 김나현(유안초5) ▲ 동상 5 양정운(광림초5)</p> <p>◇ 클래식 독무 중등부 1.2학년 ▲ 은상 2 송연지(금호중앙중1)</p> <p>◇ 클래식 독무 중등부 3학년</p>	<p>▲ 최고상 2 백다원(광주북성중3) ▲ 은상 1 유해원(금구중3)</p> <p>◇ 클래식 군무 초등부 ▲ 금상 1 김소율 외 7(초등연합) 2 박시은 외 27(광주송원초2-6)</p> <p>◇ 창작 독무 초등부 1.2학년 ▲ 금상 2 백수민(만호초2) 4 서시은(운리초2) ▲ 은상 13 이서율(광주송원초2) ▲ 동상 12 이서빈(광주용두초2)</p> <p>◇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 금상 1 나유송(겨차씨크리스찬스쿨) ▲ 은상 3 이연재(광주송원초3)</p>	<p>4 조예담(풍암초3) 10 이루다(태봉초3) ▲ 동상 2 이승빈(양지초3) 5 윤아인(화정남초4) 7 박채원(광주송원초4) 8 배지후(광주본촌초3) 11 문서하(주월초3)</p> <p>◇ 창작 독무 초등부 5.6학년 ▲ 은상 4 서현영(광주월산초6) 5 박기현(광주광천초6) ▲ 동상 2 박시은(광주송원초6) 3 서예람(유촌초6)</p> <p>◇ 창작 군무 초등부 ▲ 은상 1 이소흔 외 10(살레시오초3-5)</p>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첼로맥'과 함께 '행복 클래식'



데이비드 이

조윤경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 첼리스트 조윤경 협연 5월 1일 금호아트홀

'클래식 스타 첼로맥과 함께 하는 앙상블 무대'

지난 2019년 창단된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결성한 연주 단체다. 바이올리스트 이혜정을 초청, 창단연주회를 개최한 이래 수준높은 솔리스트, 객원지휘자와 함께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 광주시 문화예술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광주역 살리기' 연주를 주관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진행중이다.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5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행복 클래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중인 데이비드 이가 객원지휘를 맡아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다.

공연의 첫 무대는 6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헝가리 전통음악 색채가 인상적인 헝가리 출신 작곡가 바르토크의 '무나니안 민속무곡'이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구독자 22만 명(총 누적 조회수 3600만명)을 보유한 독보적인 유튜브 채널 '첼로맥'을

운영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첼리스트 조윤경이 협연한다.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조윤경은 서울대를 거쳐 줄리어드 음악원, 런던 왕립음악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첼로의 깊은 음색과 기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으로 우수어린 벨로디가 인상적인 '보칼리제', 경쾌한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1악장', 화려한 기교를 만날 수 있는 몬테의 '차르타슈', 감미로운 느낌의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4중주 1번'이다.

피날레곡은 요제프 슈크의 '세레나데 Op.6'이 장식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7712-44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목포대 음악학과 '마스터 클래스'

5월2일,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헤르트 초청 무료 공개레슨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음악학과는 올해부터 국내·외 저명한 전문 연주자들을 초청, 공개레슨을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를 시작한다.

오는 5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목포대 도림캠퍼스 창조관 연주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마스터 클래스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헤르트를 초청했다. 아비람 라이헤르트는 목포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실기를 수강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레슨을 진행한다.

1997년 반 클라비엔 국제콩쿨에서 3위로 입상한 그는 미시건주립대학에 특례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하다 10여 년 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인 교육

자이자 전문 피아니스트다. 서울대 내에서도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거쳐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직접 무대에서 레슨을 받는 학생 뿐만 아니라 객석의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자리다.

마스터 클래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 예약 절차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1-450-605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비람 라이헤르트